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2. 08. 22(수), 14:00 ~

▣ 장 소 : 고궁박물관 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 | | |
|----|---|----|
| 1 | 「경주 읍천 주상절리군」 천연기념물 지정 | 공개 |
| 2 |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천연기념물 지정 | 공개 |
| 3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어선통항을 위한 수로준설 | 공개 |
| 4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말(馬) 사육 | 공개 |
| 5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생태공원 조성 | 공개 |
| 6 |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다가구주택 증축 | 공개 |
| 7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신흥사 심우당 건립 | 공개 |
| 8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작업대기소 및 정비고 정비 | 공개 |
| 9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내외 시추조사 | 공개 |
| 10 | 「제주 용천동굴」, 「제주 당치물동굴」 지정구역 내외 자전거 도로 개설 | 공개 |
| 11 | 「제주 용천동굴」 주변 수련시설 신축 및 상수도관 설치 | 공개 |
| 12 | 「목포 갯바위」 주변 해상보행교 설치 | 공개 |
| 13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 | 공개 |

【검토사항】

| | | |
|----|------------------------------|----|
| 14 |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 공개 |
| 15 | 「포천 아우라지 배개용암」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 공개 |
| 16 | 「한라산 백록담」 명승 지정 검토 | 공개 |
| 17 | 「한라산 선작지왓」 명승 지정 검토 | 공개 |
| 18 | 「제주 방선문(訪仙門)」 명승 지정 검토 | 공개 |
| 19 |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내 옛길복원사업 설계승인 | 공개 |

【보고사항】

| | | |
|----|------------------------|----|
| 20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 공개 |
|----|------------------------|----|

【심의사항】

천기 2012-08-01

1. 「경주 읍천 주상절리군」 천연기념물 지정

가. 제안사항

「경주 읍천 주상절리군」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읍천 주상절리군」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0. 9.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지정추진)
 - '10.~1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협의
 - '12. 3. 경주 읍천 주상절리 천연기념물 지정계획 통보(문화재청→경주시) 및 경주시 관련 자료 제출
 - '12. 5.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 '12. 6. 22. ~ 7. 2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 '12. 7. 19 / '12. 8. 2. 경주시 의견제출(문화재명칭 변경)⇒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다. 주요 신청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2) 주요내용

- 명 칭 : 경주 읍천 주상절리군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공유수면(101,052m²)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 지정가치
 - 경주 읍천 주상절리는 발달규모와 발달크기 및 형태의 다양성에 있어서 기지정되어 있는 타 지역 주상절리 천연기념물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부채꼴 모양의 특이 주상절리를 비롯한 수평방향의 주상절리가 대규모로 발달되어 있음
 - 또한 화산암의 냉각과정 및 특성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연구 및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데에 부족함이 없음은 물론, 동해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학술자료를 제공

○ 문화재관리단체 : 경주시(경주시장)

○ 문화재구역 : 101,052m²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m ²) | | 소유자 | | |
|-------------------|---------------|---------------|---------------------|---------|----------|---------------|---------------|
| | | | 지적 | 지정면적 | 주소 | 성명 | |
|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 해역부 (좌표) | 공유 수면 | | 101,052 | ※ 해역부 좌표 | | |
| | | | | | A점 | X=331009.4290 | Y=235343.8175 |
| | | | | | B점 | X=331120.8633 | Y=235220.3046 |
| | | | | | C점 | X=331050.6958 | Y=235188.4157 |
| | | | | | D점 | X=331030.0504 | Y=235229.2763 |
| | | | | | E점 | X=330985.6713 | Y=235237.4728 |
| | | | | | F점 | X=330919.1063 | Y=235204.2601 |
| | | | | | G점 | X=330904.4028 | Y=235163.9540 |
| | | | | | H점 | X=330804.3747 | Y=235096.7016 |
| | | | | | I점 | X=330661.9929 | Y=235025.0393 |
| | | | | | J점 | X=330484.3342 | Y=234959.6406 |
| | | | | | K점 | X=330456.9303 | Y=234965.8748 |
| | | | | | L점 | X=330453.2461 | Y=234945.5560 |
| | | | | | M점 | X=330402.2435 | Y=234929.3688 |
| | | | | | N점 | X=330364.4361 | Y=234949.2440 |
| | | | | | O점 | X=330350.4751 | Y=234944.8872 |
| | | | | | P점 | X=330336.5838 | Y=234876.2732 |
| Q점 | X=330294.3400 | Y=234857.3630 | | | | | |
| R점 | X=330256.2349 | Y=234861.0228 | | | | | |
| S점 | X=330184.5972 | Y=234916.2246 | | | | | |
| 계 | | | | 101,052 | | | |

라. 검토의견(*****)

- 경주 읍천 주상절리군은 부채꼴 모양의 특이 주상절리를 비롯한 수평 방향의 주상절리가 대규모로 발달되는 등 지정 가치가 충분하여 천연기념물 지정하고자 함
- 다만 지정예고 시 의견 제출한 경주시의 명칭 변경여부(경주 읍천 주상절리군 →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주상절리가 경주 양남면 읍천리~하서리까지 펼쳐져 있으므로 읍천리만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양남(면)으로 통일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12. 5. 4.)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문화재 명칭(안) : 경주 읍천 주상절리대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문화재 지정 및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는 논문이 발표됨
(진광민, 김영석, 2010, 울산 정자해수욕장과 경주 읍천 해안에서 관찰되는 수평 주상절리(와상절리)의 발달특성 및 관광지질자원으로서의 가치 연구, 지질학회지, 46권 4호, 413-427)
- 지정가치
 - 수평, 수직, 방사상(부채꼴) 등의 다양한 주상절리가 해안을 따라 대규모로 발달. 과거 해수면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는 해안단구, 파식대지 발달. 단구층 내에는 월마도와 구형도가 매우 양호한 잔자갈층이 발달되는 것으로 판단됨.
- 기준 : 주요한 지질구조와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문화재(문화재구역) : 해안을 따라 개발되어 있으므로 개발제역을 제외하고, 주상절리와 단구지형을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역.
 - 폐쇄된 군사용지는 시급히 시에서 인수하여야 함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지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수려한 해안경관과 이미 부분적으로 관람로와 정자가 설치되어 있어 탐방코스로 활용
- 종합의견
 - 다양하고 특이한 주상절리의 분포, 해안단구지형 발달, 수려한 해안경관 등으로 천연기념물 지정 가치가 충분함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문화재 명칭(안) : 경주 와상 주상절리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경주 읍천항 일원의 해안선에 노출되어 있음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일반적인 주상절리의 형태는 수직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거나 읍천 현무암주상절리의 경우는 수평에 가까운 산상을 보인다.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문화재(문화재구역) : 읍천항 남부에서 진리방파제 북단까지
 - 보호구역 : 해안 절벽을 포함한 공유수면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해안절벽으로부터 50m까지 지자체 조례에 의거 무분별한 개발행위 규제가 필요함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의 특성상 훼손의 위험이 낮으므로 일반인들에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관람동선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관람동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함이 적절하다.
- 종합의견
 - 일반적인 형태와 다른 주상절리는 특이한 형상으로 희소성과 학술성, 교육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문화재 명칭 : 읍천 주상절리군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상기 지역은 신생대 마이오세 동안 일어난 동해의 확장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서의 화산활동으로부터 기원한 염기성 화산암이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읍천리 해안(읍천항과 하서항 사이)을 따라 약 1km의 길이와 약 130 m의 폭으로 노출된 지역이며, 서측 배후의 육상에는 제4기 해안단구가 부분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 주상절리가 발달한 화산암이 노출된 지역은 대부분 조간대 상에 위치한 공유수면 지역이며, 이 해안의 서측에는 해안 방향에 대체적으로 평행한 방향의 국도(31번)가 지나가고 있고, 이 국도변을 따라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이 단속적으로 들어서 있다. 한편 주상절리 발달 해안의 북동측 해안 배후에는 노후화된 군부대 시설이 위치해 있다.
- 해안을 따른 산책로에는 국부적으로 데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북단 및 남단에는 각각 1개소의 전망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 연혁 및 유래

- 이 지역의 화산암에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발달한 주상절리 중 발달방향의 측면에서 가장 특이성을 띠는 부채꼴 모양으로 발달한 주상절리는 현지 주민들에 의해 '재돌' 또는 '기와돌'이라 불려왔으나, 이 해안 지역에 대한 군의 출입통제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근래의 일로서, 2010년 10월 7일자 서울신문을 통해 이 지역의 정보가 소개된 바 있다.
- 이 지역 주상절리의 발달특성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2010년 8월 지질학회지(진광민, 김영석)를 통해 '울산 정자해수욕장과 경주 읍천 해안에서 관찰되는 수평 주상절리(와상절리)의 발달특성 및 관광지질자원으로서의 가치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으나, 이 주상절리의 구체적인 성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 특징

- 암질 : 주상절리가 발달한 이 지역 염기성 화산암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광물 및 지구화학분석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암종을 판정할 수는 없으나, 야외에서의 육안 관찰에 의해서는 현무암질로 판단된다.
- 지질시대 : 신생대 올리고세 내지 마이오세

- 발달특성 : 주상절리 횡단면의 직경은 20 내지 100cm의 규모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횡단면의 형태 또한 오각에서 팔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화산암의 주상절리들이 대부분 지표면에 수직 또는 경사된 방향으로 발달한 것과는 달리, 이 지역 주상절리들에서는 수평방향의 주상절리가 흔히 발달되어 있으며, 일부에서 부채꼴 형태의 주상절리가 발달함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직경 수 십m 내의 범위에서 서로 직교하는 세 방향의 주상절리가 발달함 또한 특이한 기록이다. 한편 일부 주상절리 발달 지역에서는 소규모의 현생 파식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 지정 가치

- 전 세계적으로 주상절리의 기록은 그리 드물지 않은 지질기록이며, 국내에도 여러 지역의 화산암 발달 지역에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그 특이성 및 발달규모에 의거하여 천연기념물(제주도 대포동, 포항 달전리, 광주 무등산 등)로 지정되어 있다.
- 그러나 읍천 해안의 주상절리군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발달규모와 발달크기 및 형태의 다양성에 있어서 기지정되어 있는 타 지역 주상절리 천연기념물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부채꼴 모양의 특이 주상절리를 비롯한 수평 방향의 주상절리가 대규모로 발달되어 있음이 이 지역 주상절리군만이 가지는 고유 특성이다. 이와 함께 이 지역에는 모든 방향의 주상절리가 한 지역에 공존함에 따라 주상절리의 야외교과서의 특성을 가진다.
- 따라서 이 지역의 주상절리군은 화산암의 냉각과정 및 특성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연구 및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데에 부족함이 없음은 물론, 동해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학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다.

○ 근거기준

- 전술한 이 주상절리군의 지정가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천연기념물 지정기준에 명시된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 중 1)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의 가치 기준을 충족한다.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이 주상절리군의 발달특성은 특이성과 희귀성 및 다양성에서 뛰어난 분명한데, 이들 주상절리의 구체적인 성인이 아직 규명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 주상절리군의 자연사적 가치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학술조사 및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와 함께 이 주상절리군의 자연사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주상절리군의 발달특성과 성인을 설명하는 적절한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지역의 탐방로 개설시 육상에 발달한 제4기 해안단구의 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종합의견

- 이 주상절리군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 및 교육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이 주상절리군의 자연사적 가치를 보존함과 함께, 문화재로서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바. 참고자료(지정예고 기간 중 수렴의견)

<***>

○ 명칭변경 필요

| 기존 명칭 | 변 경 | 사 유 |
|---------------|---------------|--|
| “경주 읍천 주상절리군” |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 주상절리가 읍천~하서까지 펼쳐져 있으므로 읍천리만 특정하기 보다는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으로 변경 검토 필요 |

○ 지정면적의 최소화 조치

-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으로서 공유수면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주상절리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해 지정구역의 대규모(1개소)보다 실제 주상절리 구역에 대하여만 소규모(여러 개소) 지정

○ 보호구역 지정 금지

- 천연기념물 지정예정 구역의 주변 육역은 우리시에서 2011년부터 주상절리 테마파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주상절리 산책로가 완공되어 많은 관광객 유치 및 청소년들의 교육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 인허가 및 도시계획 변경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제한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함은 물론, 동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인근 개인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함.

○ 어업제한 금지

- 동지역의 공유수면은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 의거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에서 관리하는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구역으로 패류 및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해역임에 따라 지역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이며 어업활동 지역으로 동 법령에 의한 어업활동에 제한을 주어서는 안됨.

<*** ** **>

- 현재 지역 어업인들은 주상절리 및 인근 공유수면 수심 15m까지는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장으로 경주시 수협이 면허를 받아 지역 어촌계원이 수산동식물의 산란을 위한 서식환경 조성, 치어방류, 어장청소 등 계속적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어류, 미역, 전복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등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될 경우 어업권행사 및 어업활동이 금지되어 어장의 황폐화, 어업인 소득이 감소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육지를 제외한 해상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제외시켜 어업인의 어업권 행사제한으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2.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천연기념물 지정

가. 제안사항

「포천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 및 주상절리 협곡」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포천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 및 주상절리 협곡」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1. 3. ~ '11. 10. 2011년 지형·지질 문화재(카르스트지형, 폭포) 자원조사 실시
 - '12. 4. 2011년 지형·지질 문화재 우수자원 지정에 대한 의견 수렴(문화재청→지자체)
 - '12. 4. 비둘기낭 폭포 지정에 대한 의견제출(포천시→문화재청)
 - '12.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 '12. 6. 22. ~ 7. 2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 '12. 7. 20. 수자원 공사 지정 관련 의견 제출(지정예고구역 내 교각 및 이설도로 건설)
 - '12. 7. 31. 포천시 지정 관련 의견 제출(문화재 지정에 이의 없음, 이설도로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나, 건설시 친환경 경관 조망 교량으로 건설)
 - '12. 8. 17. 문화재청→포천시, 수자원공사(지정구역 내 교각 건설은 불가하며, 기존의 이설도로를 활용)

다. 주요 신청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주요내용
 - 명 칭 :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 소재지 :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415-2번지 등 7필지(31,664㎡)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 지정가치

- 비둘기낭 폭포는 한탄강 용암대지가 개석되면서 형성된 폭포로 그 주변에는 크고 작은 하식동과 주상절리, 판상절리, 협곡, 용암대지 등 철원-연천지역의 지형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 특히, 용암분출에 따른 침식기준면의 변동과 수계발달 간의 상호작용과 용암대지 내의 폭포 발달과정을 알 수 있는 독특한 폭포지형으로 지형·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큼

○ 문화재관리단체 : 포천시(포천시장)

○ 문화재구역 : 7필지 / 31,664㎡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
| | | | | 지적 | 지정면적 | 주소 | 성명 |
| 1 |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 산42-1 | 천 | 15,440 | 6,396 | | 국토해양부 |
| 2 | | 411-1 | 천 | 9,937 | 9,937 | | 국토해양부 |
| 3 | | 415-1 | 천 | 315 | 315 | | 국토해양부 |
| 4 | | 415-2 | 천 | 11,374 | 11,374 | | 국토해양부 |
| 5 | | 416-2 | 전 | 438 | 438 | | 국토해양부 |
| 6 | | 416-3 | 전 | 769 | 769 | | 국토해양부 |
| 7 | | 442-7 | 천 | 26,040 | 2,390 | | 국토해양부 |
| 계 | | | | 64,313 | 31,619 | | |

라. 검토의견(*****)

-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는 지정가치가 충분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자 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12. 4. 26.)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문화재 명칭(안) : ‘포천 비둘기낭폭포와 냉각절리 및 협곡’ 또는, ‘포천 비둘기낭폭포와 현무암 협곡’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북한의 평강 북동쪽에 위치하는 680m 고지에서 분출하여 한탄강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소규모 용암대지에 특징적인 현무암 지대의 지형인 폭포, 협곡, 주상절리 등이 발달함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한탄강 지류인 이 지역은 유동성이 큰 현무암 지대에 발달하는 특징적이고 다양한 지형과 지질구조를 제주도를 제외한 육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지역임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포천시에서 제안한 지정구역에 협곡 입구 한탄강 하안의 산256-2임과 산54임을 포함
 - 보호구역 : 한탄강 홍수조절댐에 의한 일시적인 수몰지역이지만 현지에 적합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설정이 필요함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해당지역은 한탄강 홍수조절댐이 만수일 때 일시 수몰되는 지역으로서 필수적인 시설물 설치 외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함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재 탐방로 시설을 하고 있으나 최하부의 조망대를 최소화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현무암 용암대지에 발달하는 지형과 지질구조를 관찰하는 탐방코스로 활용함이 바람직함.
- 종합의견
 -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자연탐방 코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문화재 명칭(안) : 포천 비둘기낭폭포와 냉각절리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화산리의 한탄강 연변
- 연혁 및 유래 : 약 20만년 전에 분출한 현무암의 용암대지에 발달하는 폭포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용암의 분류로 형성되는 수계의 변화에 따른 폭포의 발달은 침식기준면의 변동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폭포 하류와 상류 일부 수계
 - 보호구역 : 수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까지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수계에 영향을 주는 굴착, 수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지표수의 낙수에 의한 폭포와 동시에 용암류 사이에서 분출하는 지하수의 낙수도 폭포의 한 구성 요소가 되므로 지하수의 오염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종합의견

- 현무암 용암대지에 발달하는 작은 협곡과 폭포는 하천의 침식과정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며, 치밀한 냉각절리의 발달이 침식작용에 미치는 영향 등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고 협곡과 주변 식생과 어울리는 경관성도 우수하여 자연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 문화재전문위원회>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문화재 명칭 : 포천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415-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한탄강으로 유입하는 불무천의 하구로부터 153m 상류에 자리잡고 있다. 포천시에서 87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지점의 한탄강 주변 한적한 곳에 입지하여 접근성은 낮다.

○ 연혁·유래 및 특징

- “비둘기낭 폭포”라는 명칭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비둘기 등지와 같은 와지(窪地)지형과 단애(斷崖)에서 설명된다. ‘낭’은 낭떠러지를 의미하고, 과거에 비둘기가 많이 깃들여 살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비둘기낭폭포는 한탄강 유역의 용암대지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지형이다.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용암대지가 불무천을 따라 개석되면서 형성된 비둘기낭폭포는 장쾌하게 낙하하는 물줄기와 깃푸른 용소, 단애와 단애 하단부의 기이한 공동(空洞), 하상에 드러나는 포트홀(pot hole)과 마식지형 등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들로 충진되어 있다. 크고 작은 규모의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의 냉각절리, 여러 차례 분출한 용암류의 증거(compound flow) 등은 이 지역의 지질사와 지형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비둘기낭폭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탁월한 학술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대상 및 범위

- 보호구역 : 비둘기낭폭포가 위치한 지점을 중심으로 상하류를 연장한 구간(지형경관이 다소 동질적인 구역)

○ 종합의견

- 비둘기낭 폭포의 잘 보존된 자연지형과 높은 지질학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국가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바. 참고자료(지정예고 기간 중 수렴의견)

<***>

- 우리시에 본 지정건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주(국유지) 및 이해관계자의 공식적인 의견이 접수된 바는 없으나,
 - 현재 한탄강 일원에서 추진중인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임진강건설단)에서 ‘문화재구역(안)에 이설도로 공사가 추진중으로 문화재구역의 축소 가능 여부’를 우리시에 협의한 바 있음.
-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의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한 우리시 의견은
 - 문화재청의 지정예고(안)[천연기념물과-3107, 2012. 06. 21]의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며,
 - 현재 문화재 지정예고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이설도로 교량」 건설은 문화 유적의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나
 - 지정예고 이전에 추진되고 있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이설도로 교량」의 건설이 불가피한 경우 문화재와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 경관 조망 교량’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함.

<*****>

- 한탄강 홍수조절댐 사업이 '06년부터 추진중이며, 비둘기낭 인근 지역 주민들의 통행 편의확충을 위한 이설도로 건설공사가 시행중임을 감안하시어, 문화재 지정시 그 면적으로 최소화하여 축소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이설도로 관련 민원발생 등 공정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함

※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내용('12. 8. 17. / 문화재청→ 포천시, 수자원공사)

- 상동교 건설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포천 지역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상동교 건설 재고
- 다만, 한탄강 홍수조절댐 사업과 이설도로 건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므로 인근 지역주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포천시와 협의하여 기존 건설도로(비둘기낭 1길)을 활용하여 이설도로를 건설 요청

사. 의결사항 : 원안 가결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어선통항을 위한 수로준설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원활한 어선통항을 위한 수로준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어선통항로 확보를 위한 수로준설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 7.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어선통항로 확보위한 수로준설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우도-산자도간 수로 남쪽 공유수면
 - 사업내용

| 구분 | 내용 | 비고 |
|------|-------------------------|--------------|
| 준설수심 | (-) 10.0m | 일반 어선통항수심 2m |
| 면적 | 491,709m ² | 149,000평 |
| 준설수량 | 4,260,344m ³ | |
| 부대공 | 오탁방지막 외 기점부표 1식 | |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해당지역은 낙동강 철새도래지 하류지역으로 토사가 퇴적되어 사구가 활발히 발달되고 있는 곳으로 철새들의 안정적인 쉼터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지역임
- 준설 행위가 철새도래지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민 어업활동 편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12. 7.9)

< *** 위원* >

- 본 건은 신전어촌계가 주관하여 진우도-신자도 간의 공유수면에 어선의 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로를 확보하고자 총 공사비 41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수심 10m, 면적 491,709 평방미터에서 총 준설토사 4,260,344 입방미터를 채취하고자 한 것임.
- 현지 조사결과, 이 지역에 출입하는 민간 어선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서는 최단거리 구간의 수로 확보가 매우 긴요한 사안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공유수면에 수심 10m 깊이의 수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준설하는 것은 이 일대의 생태환경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더욱이 이와 같은 목적 하에서 어선출입을 위한 수로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일회성의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준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심 10m의 토사 준설은 수로 확보를 위한 조치로써는 과도한 행위로 평가되어, 본 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원>

- 낙동강 하류에서 양식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의 항해 시 안전 및 연료 절감 등을 위해 효율적인 항로의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낙동강 하류의 준설을 통한 항로 확보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 179호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인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하류는 상류에서 밀려오는 토사에 삼각주의 크기가 점점 하류쪽으로 밀려나가는 것이 자연법칙이다. 그러므로 토사의 적체현상은 향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방의 상류의 쌓이는 토사를 준설하는 경우는 홍수조절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대 자연의 법칙에 의해 바다쪽의 쌓이는 토사를 막대한 경비를 지불하여 인공적으로 준설하는 것은 또 다른 환경훼손이라 생각된다. 최근에는 이 지역 하류에 형성되는 갯벌(사구)지역에 많은 철새들이

모여들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사구는 문화재구역
상류에서 행해지는 각종 방해요인에 대한 대체 서식지로의 기능을 하리라
기대되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본 사업이 진행되면 준설장비에 의한
소음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이곳에 도래하는 철새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에 순응하면서 우회하는 항로를 이용하
거나 소형작업선이 만조 시에 항해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깊이만을 준설
하여 얻는 손익과 계획대로 준설하는 경우의 손익 등에 대한 분석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자료가 요구된다.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4.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말(馬) 사육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말 사육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말(馬)사육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 7.23.

(3) 신청내용

○ 사업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말(馬)사육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179-28번지

○ 사업내용

- 말사육두수 : 5두 이내

- 말운동시설 : 한정된 지역에서 제한적 운용 [목책설치 10m×10m×0.8m(목책)]

※ 진우도 내 이종간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 사업기간 : 허가일~계속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진우도는 무인도이자 철새들의 중요한 쉼터로서 사육목적의 섬내 말(馬) 사육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있을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12. 8.16)

< ***위원>

- 진우도는 “천연기념물 제 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로서 우리나라 남쪽 끝에 위치하며 총 면적 810,850㎡ 중 국유지 3필지 154,372㎡ / 공유지(김해시) 1필지 84,991㎡ / 사유지 120필지 571,487㎡로 거주민 및 경작지가 없는 무인도로 월동조류는 물론 텃새나 이동성 조류들에게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하고 있다. 본 건은 문화재 지정구역내인 진우도에 말을 사육하기 위해 요청한 협의건으로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지방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조류학회지에 게재된 “진우도의 동계 조류상(조, 2008)”에 의하면 진우도에는 검독수리, 흰꼬리수리, 잿빛개구리매, 검은머리갈매기 등 천연기념물 조류 등이 월동을 위해 도래하며 하절기에는 초원에서 개개비사촌과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의 여름철새 및 텃새 등이 번식지로 이용하고 있다. 2012년 8월 17일 현지방문시에도 섬의 내부에는 박새나 흰뺨검둥오리 등 텃새는 물론 도둑계, 다양한 메뚜기목 곤충 등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주변에 넓게 펼쳐진 갈대숲 등과 함께 철새들의 채식지 및 휴식지 그리고 번식지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된다. 무인도는 생물종다양성 보존 측면에서 특정종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기능을 하는 장소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인위적인 동물의 이입은 무인도의 생물다양성 보존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현재 진우도는 무분별한 폐건축물 자재와 쓰레기 등이 무방비로 방치된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은 이곳에 도래하는 철새들에게는 물론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변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계속되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개발 압력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으로는 섬의 사유지 부분을 매입 및 기타 형태로 국가가 소유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특정지역에서 특정종(수금류 포함)의 보존관리 방법 중 가축방목을 통한 초장(草長)을 조절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영국 등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진우도의 경우는 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미흡하므로 충분한 조사 및 관리 프로그램(가축방목을 통한 관리 포함)이 세워질 때까지는 외부에서의 동물(가축포함)의 이입은 삼가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본 협의 요청 건은 “천연기념물 제 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보존 측면에서 부적합한 사업으로 생각된다.

< *** **문화재위원회 >

- 사업자의 계획 신청서에서 “말의 사육 두수를 5두 이하, 분뇨는 농업용 퇴비로 친환경농업에 활용, 주위에 방목하지 않고, 100평방미터, 0.8미터 목책의 우리 내에서 운동, 농후 사료로 사육, 타생물종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관리 한다”고함.
- 원래 말의 생육특성상 몽골과 제주도과 같은 광활한 공간과 먹이가 풍부한 초지에서 사육하여야만 말 고유의 특성을 지닌 건강한 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시한 말 사육 계획서와 현 문화재내의 축사에서 사육조건은 자칫 동물학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라 생각된다. 본 사업예정지인 문화재로서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는 철새의 낙원으로서 자연의 생명력을 극대화하는 기본 가치의 개념에서 볼 때 위 말 사육 조건에서의 말 반입은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 추구에 맞지 않다고 봄.

바. 의결사항 : 부결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생태공원 조성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 7.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생태공원 조성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5-3, 5-46
 - 사업내용 : 나대지 → 생태공간조성
 - 시설물 설치 : 막구조과고라, 평상, 연식의자, 상징게이트, 전망데크
안전난간, 트래버스, 종합안내판, 태양광가로등
 - 식재공사
 - 교목 : 소나무(해송), 이팝나무, 느티나무, 배롱나무 등 총 43주 식재
 - 관목 : 광나무, 회양목, 철쭉 등 총 2090주 식재
 - 사업기간 : 허가일 ~ '13. 1.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사업부지는 현재 나대지로서 생태공원 조성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시행한다면 문화재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12. 8.16)

< *** 문화재위원 >

- 본 건은 서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도로주변 유희공간을 강서구가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한다.

본 사업예정지 공간은 대 도로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철새들이 안정적으로 휴식할 만한 공간으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철새들의 이용공간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사업예정지는 종종 폐건축물 등이 방치되어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공간으로 생각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강서구청에서 본 공간을 시민 휴식공간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곳은 “천연기념물 제 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지역이므로 가능한 인공구조물을 배제하고 친 자연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수계와 인접한 북 단면 부분의 데크 면적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잔디포장이나 자연석으로 주변과 자연적으로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 ***문화재위원 >

- 본 사업이 수목식재 사업으로 기존의 환경을 개선하며 차폐식 수목식재로 인하여 남측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의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 문화재에 미치는 악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6.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다가구주택 증축

가. 제안사항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다가구 주택 증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다가구 주택 증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 제5, 6차 위원회 시 부결된 사항으로 층수 및 규모 등을 변경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천제연 난대림(천연기념물 제378호)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785-1
 - 지정일 : 1993.8.19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다가구주택 증축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의 2필지
 - 사업내용

| 구분 | 1차신청('12. 5월) | 2차신청('12. 6월) | 3차신청('12. 8월) |
|--------------|-------------------|--------------------|--------------------|
| 건물위치 | 지정구역으로부터 7.5m | 지정구역으로부터 18m | 지정구역으로부터 18m |
| 건축면적 /연면적 | 290.42㎡/619.12㎡ | 319.20㎡/738.20㎡ | 319.20㎡/468.00㎡ |
| 건물규모 | 지상 3층, 높이 10.775m | 지상 3층, 높이 11m | 지상 2층, 높이 8.2m |
| 건물용도 | 다가구 주택 | 다가구 주택 및 일반 음식점 | 다가구 주택 및 일반 음식점 |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18m이격(1구역/기존 건물 개축·재축)

라. 검토의견 (*****)

- 신청 대상지는 문화재지정구역으로부터 18m이격된 위치로 현상변경 허용 기준상 1구역(기존 건물 개축·재축)에 해당되며, 기존 창고 및 2층 건물 철거 후 2층 건물로 증축하는 사항임
- 이미 2차에 걸쳐 부결된 바 있으나 기존 3층 건물 증축으로 신청한 내용을 변경, 2층으로 층수를 낮춰 재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7.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신흥사 심우당 건립

가. 제안사항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신흥사 심우당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신흥사 심우당 건립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
- (2) 대상문화재명 : 설악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 소재지 : 강원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대
 - 지정일 : 1965. 11.5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심우당 건립
 -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일원 신흥사 경내
 - 사업내용 : 정면 7칸, 측면 3칸 226.80m²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내

라. 검토의견 (*****)

- 신청 대상지는 이미 사찰 부속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8.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작업대기소 및 정비고 정비

가. 제안사항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작업대기소 및 정비고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작업대기소 및 정비고 정비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 (2) 대상문화재명 : 설악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 소재지 : 강원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대
 - 지정일 : 1965. 11.5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작업대기소 및 정비고 정비
 -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2
 - 사업내용 : 기존 노후 작업대기소 및 정비고 철거 후 신축
 - 작업대기소 : 93㎡(15.5×6.0×H3.3m), 경량철골구조
 - 정비고 : 84㎡(14.0×6.0×H7.0m), 경량철골구조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내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 기존 노후된 시설물을 철거 후 정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마. 참고자료(***) 의견)

- 신청사업은 국가기간 도로망의 상시관리를 위한 시설물로 동절기 등 제설 작업 등을 통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시설물이며, 한계령구간의 경관과 근무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9.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내외 시추조사

가. 제안사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내외 시추조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내외 지반조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동일 조사 건으로 3명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5번지 등
 - 지정일 : 2000. 3. 2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송산차량기지 건설공사 중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조사
 -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 사업내용 : 송산차량기지 건설공사중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조사

| 신청사항 | |
|------------------------|---|
| 신청인 | 사업내용 (시추공) |
| (주)우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종훈 | □교량구간 : 11공 □성토구간 : 42공 |
| 지오택엔지니어링(주) 송영수 | □시추공 48공 □교량구간 : 매 교대/교각마다 1공 □연약지반 구간 : 80~100m간격 □구조물구간 : 개소당 1공 / 굴착구경 : 76mm |
| (주)희송지오택 김기석 | □굴착깊이 : 20m내외 □굴착직경 : 76mm □시추공 : 85공 |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외(1구역, 3구역)

라. 검토의견 (*****)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지정구역 내 시추조사는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

<*** 문화재위원>

- 지반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추조사 자체가 현재 나타나 있는 공룡알 화석산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시추조사 결과에 의하여 복선전철 노선을 시추한 지역으로 결정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임
- 따라서 이번 시추조사 지역으로 노선을 결정할 시에는 시추조사에 의한 지하지질특성, 공룡알 화석과의 관계, 지정구역 내의 경관적 측면, 개펄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함
- 시추에 의하여 획득된 코아(core)는 보관하여야 함

바. 참고자료(**** 의견)

<***>

- 위 사업신청건은 공룡알화석산지 문화재구역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제1구역, 3구역에 걸쳐 신안산선 복선전철 송산차량기지 건설공사를 위한 지반조사를 하는 사항으로 특히, 문화재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매장문화재의 유존지역이므로 관계전문가의 입회하에 시추공사를 실시하고 지반조사를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호구역 및 제1구역의 경우 지반조사를 통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2009.11.30. 공룡알화석산지 주변 서해선(화양-원시) 복선전철 타당성 지반조사(시추공사) 현상변경 허가 시에도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사례가 있음.

사. 의결사항 : 부결

10. 「제주 용천동굴」, 「제주 당처물동굴」 지정구역 내외 자전거 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제주 용천동굴」, 「제주 당처물동굴」 지정구역 내외 자전거도로 포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용천동굴」, 「제주 당처물동굴」 지정구역 내외 자전거 도로 포장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66호 제주 용천동굴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번지 등
 - 지정일 : 2006. 2. 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 김녕리 해안도로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개설
 - 기존도로 노면 확장 포장 L=5,470m, B=0.1m~4.8m(자전거 도로 개설 : B=2.4~3.0m)
 - 지정구역 내 공사 : 노면 확장 포장 L=520m, B=0.3~4.3m(자전거 도로 개설 : B=2.4~3.0m)
 - 45cm 절토 후 아스팔트 포설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외

라. 검토의견 (*****)

- 행원~김녕간 기존에 개설된 해안도로 폭을 넓혀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절토량이 많지 않아 문화재 훼손 우려는 적다고 보이나 「제주 용천동굴」 과 「제주 당처물동굴」 지정구역 내 사업이므로 작업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작업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11. 「제주 용천동굴」 주변 수련시설 신축 및 상수도관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용천동굴」 주변 수련시설 신축 및 상수도관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용천동굴」 주변 수련시설 신축 및 상수도관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66호 제주 용천동굴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번지 등
- 지정일 : 2006. 2. 7.

(3) 신청내용

- 사업명 : 수련시설(오토캠핑장) 신축 및 상수도관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
- 사업내용 : 수련시설 신축 및 상수도관 설치

- 수련시설

- 건물 2동 신축 : A동(관리실, 화장실) 면적 95.9㎡ 지상1층, 경량철골조 / B동(샤워실, 취사장) 면적 68.6㎡ 지상1층, 경량철골조
- 야영장 : 면적 2,137.61㎡ / 캠핑카 11대

- 상수도관 신설관로 매설(길이 170m, 관경 PE 25mm)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2구역)

라. 검토의견 (*****)

- 「제주 용천동굴」 주변 수련시설 신축 및 상수도관 설치사업은 IUCN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시 지하수 오염으로 동굴 보존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마. 참고자료 (**검토)

<*** 문화재위원>

- 사업예정지는 비록 현상변경 허가기준 2구역에 해당하지만 1구역이 없이 직접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핵심지역과 인접해 있음
- 더욱 용천동굴 내에는 탄산염(석회질) 동굴생성물이 아름답게 발달되어 있어 세계에서 유일한 용암동굴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용천동굴 하류의 동굴호수에는 어두운 동굴호수에 적응한 백색 어류를 비롯하여 여러 희귀한 동굴생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탄산염 동굴생성물과 동굴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동굴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함
- 세계유산 등재시 IUCN의 권고사항(5개 사항) 중에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완충지역에서 지하환경을 훼손시키는 지상의 농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조치를 수행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음
- 오토캠핑장이 조성되었을 때 특히 우려되는 아래의 사항으로 이 사업은 불허되어야 함
 - 핵심지역 내를 지나는 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동굴에 미치는 진동이 커질 것임
 - 캠핑장은 성격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를 하게 됨으로 환경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지하수 오염이 우려됨
 - 사업이 잘 될 경우, 유사한 사업이 더욱 많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오염도 가속화 될 것이 예상됨
 - IUCN의 권고사항에 위배됨
-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지구에 대한 관리는 제주도청의 문화정책과와 세계자연유산 관리단이 협력체제를 이루면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함

바. 의결사항 : 부결

12. 「목포 갯바위」 주변 해상보행교 설치

가. 제안사항

「목포 갯바위」 주변 해상보행교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목포 갯바위」 주변 해상보행교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목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500호 목포 갯바위
 -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86-24번지 인접해역
 - 지정일 : 2009. 4. 2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해상보행교 설치
 - 사업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86-24번지 인접해역
 - 사업내용 : 목포 갯바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상보행교 설치
- 해상보행교 설치(L=271m)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15m 이격)

라. 검토의견 (*****)

- 「목포 갯바위」 주변 해상보행교 설치는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마. 참고자료(**검토)

<*** 문화재위원>

- 이미 갯바위 전면에 해상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 신청 구간은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의 서쪽 측면에 설치되며, 갯바위 노두와는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 따라서 신청된 해상보행로의 설치는 갯바위 보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신서 해상보행로의 설치로 해양유물전시관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다소나마 일반인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 재고에 기여하는 측면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13.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명승 제15
 - 소재지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777번지 일원
 - 지정일 : 2005.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
 - 사업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총 3동(가, 나, 다 동) / 부지면적 5,831.00㎡/ 실사용 부지면적 1,278.00㎡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평슬라브/ 지상 1층/
 - 건축면적 : 174.24㎡(가동 33.84㎡, 나동 70.20㎡, 다동 70.20㎡)
 - 연면적 : 174.24㎡
 - 건폐율 : $174.24 \times 1,278.00 \times 100\% = 13.63\%$
 - 용적률 : $174.24 \times 1,278.00 \times 100\% = 13.63\%$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3.9.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6m 인접(허용기준 제1구역)

라. 검토의견 (*****)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지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기존 규모의 개축 및 재축만 허용되는 지역으로 동 신축행위는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 의견)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산312-1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기준]상의 제1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으로, 건축물의 설치는 기존 규모의 개축 또는 재축만 허용되는 지역으로 급경사지임.
- 당해 지역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선 기존 경사면을 절토한 후 평탄화하여 건축물을 건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난개발로 지형 훼손이 크고, 문화재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부결

【검토사항】

천기 2012-08-14

14.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남 합천 해인사 학사대에 있는 전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경상남도 합천군수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 소유자 : 대한불교 조계종 해인사
- 지정가치
 -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는 최치원과 관련된 문헌과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경상남도 기념물 제215호로 지정되어 있어 규모와 역사성이 우수하여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문화재구역 : 1필지 / 58.2m²
-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남도 합천군 · 해인사
- 주요현황
 - 수 종 : 전나무
 - 수 령 : 250여년
 - 규모 : 총1주

| 수관폭(W) | | 수고(H) | 흉고둘레 | 근원둘레(R) |
|--------|-------|-------|-------|---------|
| 동서 | 남북 | | | |
| 18.2m | 14.3m | 30.0m | 5.07m | 6.60m |

- 나무의 특징

- 원 줄기는 곧 바르며 약 5m 높이에서 굵은 북서쪽 가지가 나와 45도 뺐었다가 다시 원줄기와 약 2m 간격으로 나란히 자라며, 원래 북쪽으로 뺐은 가지가 하나 더 있었으나 풍수해 피해(벼락)로 잘려나갔음.
- 수관이 동쪽으로 치우쳐 발달했기 때문에 북쪽에서 바라본 수형은 경사지 아래쪽으로 치우친 삼각형 형태임.

- 입지환경

- 해인사 주변 울창한 숲은 사찰 중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름다운 경관으로 알려져 있어 해인사 전역의 생육환경은 좋은편에 속함.
- 해인사 대적광전 서쪽 높다란 언덕에 위치한 전나무는 주변에 느티나무, 전나무, 소나무 등이 있으나 북쪽은 주로 숲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최근 설치된 관람동선이 있다. 이 동선으로 인하여 줄기에서 약 7m지점에 높이 약2m 가량의 석축이 설치되고 중앙에는 위를 오르는 계단이 있음..
- 팔만대장경 관람 통로는 대적광전 뒤 계단이었으나 최근 학사대 전나무 아래로 주통로를 다시 내었으나 통로는 학사대 보다 지대가 낮고 전나무 수관(樹冠) 밖이어서 나무에 다른 피해는 없음.

- 유래 및 전설

- 학사대 전나무는 신라 말의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857~?) 선생이 심었다는 전설을 갖고 있으며, 진성여왕 8년(894년) 나이 37살 때 아손(阿飡)이란 벼슬을 받았으나 6두품이라는 그의 신분한계와 부패한 사회상을 한탄하여 모든 벼슬을 사양하고 방랑생활에 들어간다.

그는 지금의 대적광전 서쪽 언덕에 자그마한 정자를 짓고 그가 지낸 한림학사란 벼슬이름을 따 학사대(學士臺)라 했다. 여기서 선생이 가야금을 쳐면 수많은 학이 날라와 고운 소리를 들었다고 전한다. 조용히 글을 읽고 시를 읊조리면서 유유자적한 만년을 보내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나는 이곳을 떠날 것이다. 이 지팡이를 꽂고 갈 것이니 만약 싹이 터서 잘 자란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니 학문에 전념하라.’면서 홍제암 뒤 진대밭골로 사라져 버렸다. 선생은 이후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지며 선생이 꽂아 둔 지팡이가 자라 지금의 전나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선생이 돌아가신 해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900년대 초로 본다면 전설의 전나무 나이는 약 1,100년에 이른다.

- 조선 초기에 편찬한 지리서 《동국여지승람》 ‘고운선생 사적’이란 항에 ‘학사대는 해인사 서쪽에 있고 곁에는 높이 1백 척(尺)에 이르는 늙은 전나무가 자라며 둘레가 3장(丈)여에 이른다(邊有百尺老檜 腰大三丈餘).’고 했다. 또 조선 중기의 문신 박이장(朴而章)의 시문집인 《용담집(龍潭集)》에도 전나무가 등장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 조선 초 중기에도 학사대 전나무는 우람한 크기에 고목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 나무는 조선 중기의 어느 날 죽어버린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백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 1705~1786) 선생의 《백불암집》이란 시문집에 학사대 전나무 이야기가 나온다. 문집 안에 영조33년(1757년) 최흥원은 해인사를 관람하고 ‘유가야산록(遊伽倻山錄)’에 이런 글을 남긴다. “ 고운 최치원 선생이 손수 심은 소나무(실제로는 전나무)가 이미 말라버리고 그 등결만 남았다. 지금 마침 2월이고 비가 오니 소나무를 심기에 적합하므로 종을 시켜 4그루의 작은 소나무를 캐서 그 곁에 심게 했다(而孤雲手植松已枯 獨其查在矣 余以爲此行適值二月 天又雨 正合植松 乃命奴採四小松 植其傍).”고 하였다.
- 이 기록에 따르면 지금의 전나무는 원래 자라던 학사대 전나무의 후계목으로서 1757년에 심은 4그루 중 한 그루가 살아남았음을 알 수 있다. 전나무의 특성으로 볼 때 그렇게 오래 사는 나무가 아니므로 대체로 지금의 나무는 최치원 선생이 심은 나무의 손자나무쯤으로 짐작된다.

라. 검토의견(*****)

-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는 신라말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래가 문헌 등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고 기존 경남도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역사성과 문화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마. 전문가 조사의견(현지조사 2012. 8. 1)

<*** 문화재위원>

- 학사대 전나무는 고운 최치원과 관련된 여러 전설을 갖고 있고 선인들의 시문집에도 흔히 등장하며, 250여 년 전에 후계목으로 다시 심은 선조들의 정성이 깃든 역사 나무이다.
-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유물인 팔만대장경관 관람 통로와 바로 붙어 있어서 수많은 대장경 관람객들이 한번은 들러보는 의미 있는 위치에 자란다.
- 나무의 규모는 기 지정된 천연기념물 495호 진안 천황사 전나무와 거의 같으나 문화재로서의 값어치는 훨씬 높다.
-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 조건인 나무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두루 갖추고 있고 나무의 굵기나 높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최고 전나무다. 현재 경남기념물 215호이나 천연기념물로 승격 지정이 바람직하다.

<*** 문화재위원>

- 처음 고운 최치원선생이 심은 나무는 고사했지만 이후 백불암(百弗庵) 최흥원 선생에 의해 후계목이 이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은 많은 노거수가 이렇게 후계목으로 이어주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나무의 규모는 기 지정된 천연기념물 495호 진안 천황사 전나무와 비슷하고 수형도 다소 부족하나 문화재로서의 값어치가 높고 해인사를 찾는 많은 관람객에 의해 문화재로서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다.
- 현재 경남기념물 215호이나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 조건인 나무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천연기념물로의 승격 지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된다.

<*** 전 문화재위원>

- 학사대 전나무는 고운 최치원과 관련된 여러 전설을 갖고 있고 선인들의 시문집에도 흔히 등장하며, 250여 년 전에 후계목으로 다시 심은 선조들의 정성이 깃든 역사 나무이다.
-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유물인 팔만대장경관 관람 통로와 바로 붙어 있어서 수많은 대장경 관람객들이 한번은 들러보는 의미 있는 위치에 자리한다.
- 나무의 규모는 기 지정된 천연기념물 495호 진안 천황사 전나무와 거의 같으나 문화재로서의 값어치는 훨씬 높다.
-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 조건인 나무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두루 갖추고 있고 나무의 굵기나 높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최고 전나무다. 현재 경남기념물 215호이나 천연기념물로 승격 지정이 바람직하다.

바. 문화재구역(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m ²) | | 소유자 | |
|-------------|------|----|---------------------|------|-------------------|-------------|
| | | | 지적 | 지정면적 | 주소 | 성명 |
|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 산1-1 | 임야 | 11,292,216 | 58.2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 | 대한불교조계종 *** |

사. 의결사항 : 원안 검토

15.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2. 5.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이광춘·황재하 문화재위원, 유근배 문화재 전문위원)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2) 주요내용

- 문화재 명칭(안) :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산209-1 등(49,077m²)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 지정가치
 -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은 신생대 제4기 추가령 구조선을 따라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이 옛 한탄강 유로를 따라 흐르다가 영평천과 한탄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급랭하여 형성된 것으로 우리나라 육지에서는 발견된 예가 드물고
 -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와 제4기 현무암질 용암류와의 부정합 구조, 주상절리, 하식에 및 고토양층의 발달 등 지질·지형학적인 가치 및 경관적 가치도 우수함
- ※ 베개용암 : 둥글둥글한 베개 모양의 구조를 가진 용암
- 문화재관리단체 : 포천시(포천시장)
- 문화재구역 : 7필지 / 49,077m²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m ²) | | 소유자 | |
|----|-------------------|---------|----|---------------------|--------|-----|-------|
| | | | | 지적 | 지정면적 | 주소 | 성명 |
| 1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 산209-1 | 임 | 141,323 | 3,510 | | 국방부 |
| 2 | | 산209-7 | 천 | 99,720 | 33,060 | | 국토해양부 |
| 3 | | 산209-8 | 임 | 5,614 | 3,331 | | 국방부 |
| 4 | | 산209-9 | 임 | 74 | 74 | | 국방부 |
| 5 | | 산209-10 | 임 | 732 | 732 | | 국방부 |
| 6 | | 산210 | 임 | 5,256 | 5,256 | | 국방부 |
| 7 | | 756 | 잡 | 3,114 | 3,114 | | 국방부 |
| 계 | | | | 255,833 | 49,077 | | |

라. 검토의견 (*****)

-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은 일반적으로 해저화산에서 분출되어 형성되지만, 동 문화재는 보기 드물게 육지에서 관찰되는 베개용암으로 천연기념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12. 4. 26.)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문화재 명칭(안) :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전곡읍 및 청산면의 경계부에 해당되고 한탄강과 영평천이 합류되는 지역인 아우라지에 발달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현무암질 용암이 물과 만나 급냉될 때 형성되는 베개모양의 특이한 구조를 갖는 용암, 주상절리, 부정합, 고토양 등 발달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베개용암이 발달해 있는 구릉지(돌출부) 전체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연천군에 해당되는 한탄강 하천변(하안)에 시설물 설치 금지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화산활동과 관련된 특이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자연탐방 코스로 활용
- 종합의견
 - 속히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함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문화재 명칭(안) :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홀리 한탄강 연변
- 연혁 유래 및 특징
 - 약 20만년 전에 분출한 현무암의 용암하부에 발달하는 베개용암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한탄강을 따라 분류한 용암의 하부에 형성된 베개용암으로 산출 규모나 산상이 우수하고 단면이 발달하여 베개용암의 내부구조를 잘 보여주는 것도 있어 용암의 분출과 고지형 및 고기하천의 형태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베개용암이 나타나는 하천 사면
 - 보호구역 : 하천 사면을 포함하는 상부 현무암 대지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한탄강과 영평천의 수계에 영향을 주는 굴착, 수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베개용암이 형성된 상부의 굴착행위.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일반인의 무분별한 접근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훼손을 방지하고 베개용암체를 절취 반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종합의견
 - 마이오세에 분출한 용암이 고한탄강을 따라 용류하며 고영평천과 합류 지점에서 수중에 낙하한 현무암 용암이 만들어낸 화산성 구조로, 용암과 물의 상호 작용을 잘 보여주고 현무암 분출 당시의 고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화산 지형은 국내에서 매우 희소한 경우이므로 학술성, 희소성에서 천연기념물적 가치는 매우 우수하다.

<***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문화재 명칭 :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에 위치하고 있다. 포천시청에서 37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지점의 한탄강과 영평천이 합류하는 한적한 곳에 입지하며 접근성은 낮다.
- 연혁·유래 및 특징
 - 아우라지란 두 개의 물길이 만나는 합류지점을 가리키는 데, 영평천이 한탄강으로 유입하는 아우라지에 베개용암이 나타나는 노두가 전개되어 있다. 천변의 단애를 중심으로 베개용암의 하부에는 선캄브리아기의 변성퇴적암이 자리 잡고, 그 상부에는 수직냉각절리가 관찰된다.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베개용암(pillow lava)은 용암이 흘러나오다가 물과 만나 급속하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그 형태가 베개와 유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용암이 일반적으로 베개용암은 해저화산주변에서 발견되며, 육상환경에서는 매우 희귀한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베개용암의 조직은 가장자리에서 치밀하며, 내부에서는 방사상으로 갈라져나간 절리가 특징적이다. 동일한 단애에서 상부에서 관찰되는 주상절리, 또는 수직상의 냉각절리와 잘 대비가 된다. 하부의 호상편마암층에서 발견되는 습곡과 단층작용의 흔적, 풍화층/고토양, 모래와 자갈 등은 현무암 분출이전의 고환경을 지시하고 있다. 육상환경에서 발견되는 베개용암의 희귀성과 함께 동일한 단애상의 층서에서 찾을 수 있는 학술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 종합의견
 - 아우라지 베개용암의 희귀성과 지질학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국가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검토

16. 「한라산 백록담」 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한라산(漢拏山) 백록담(白鹿潭)」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라산(漢拏山) 백록담(白鹿潭)」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추진경과
 - '10.8월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연구용역결과 우수자원 선정
 - '12.8.16~17 지정조사 실시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서귀포시장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한라산(漢拏山) 백록담(白鹿潭)」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산15번지 일원 192,145㎡
- 문화재종별 : 명승
- 문화재가치
 - 한라산 백록담은 영주 12경 중의 하나이며, 한겨울 동안 쌓인 눈은 여름철 까지 남아 있어 ‘녹담만설(鹿潭晩雪)’이라고 한다.
 - 백록담(白鹿潭)의 명칭의 유래는 한라산 정상에 백록(흰사슴)이 많이 놀았기에 명명되었다고 하며, 백록담과 관련된 고문헌으로는 최익현(崔益鉉)의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별도진(別刀鎭),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한라산(漢拏山)유람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 한라산 정상 백록담 주변의 화산암들은 수 천년 전에 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용암들로 구성되어 있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풍경을 볼 수 있으며, 정상부 분화구 호수인 백록담은 학술적 가치가 크고, 빼어난 경관을 보여주는 화산지형이며, 또한, 풍화나 침식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순상화산의 원지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잘 보존되어 있음.
 - 현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존지역이며, 천연기념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있음.
- 문화재구역 : 1필지 / 192,145㎡
- 문화재관리단체 : 서귀포시(서귀포시장),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라. 문화재 현황

○ 입지현황

- 한라산은 해발 1,950m로서 동서로 600m, 남북으로 500m, 둘레 3km, 깊이 110m의 산정호수로 가물 때가 아니면 1~2m이내의 물이 고여 있다.
- 한겨울 동안 쌓인 눈은 이듬해 이른 여름철까지 남아 있어 등산객들에게 시원한 맛을 안겨준다 해서 녹담만설이라고 하며, 영주 12경중의 하나다.

○ 유래 및 전설

- 옛날에 힘이 세고 활을 잘 쏘는 사냥꾼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사냥이 실통치 않았다. 온종일 산을 뒤져도 새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래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마침 새 한 마리가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가 맞은편 바위 위에 앉는 것이었다.
- 그는 재빨리 활의 시위를 당겼다. 그러나 새는 맞지 않고 ‘포르르’ 날아가더니 좁 떨어진 바위 위에 앉아 버렸다. 사냥꾼은 다시 한발의 활을 더 쏘았다. 그러나 허탕이었다.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세 번째 시위를 당겼다.
- 그런데 그 화살은 새를 맞지 못하고 낮잠 자는 옥황상제의 배를 맞히고 말았다. 화가난 옥황상제는 벌떡 일어나면서 사냥꾼이 서있는 한라산 정상상을 걷어찼다. 그 바람에 산꼭대기가 잘려나가 앞 바닷가에 떨어졌다. 그것이 안덕면 사계리 지경 바닷가에 있는 산방산이 되었고, 한라산 정상은 움푹 들어가 버렸다.

○ 지형·지질 현황

- 한라산은 제주도의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 순상화산의 중앙 정상부이며, 남한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상징이자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제4기 화산활동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 한라산은 정상부 분화구 호수 즉 산정화구호(山頂火口湖)인 백록담에 의해 만들어진 빼어난 화산지형을 이룬다. 한라산은 풍화나 침식에 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순상화산의 원지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 백록담의 지형은 서쪽 사면에서 상부에서 하부로 사면 불안정을 나타내는 반면, 동쪽 사면에서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한편, 북쪽 사면에서는 위로부터 급경사를 이루고, 남쪽 사면에서는 절벽의 상부와

중간에서 급경사로 사면 불안정을 이룬다. 산정의 분화구는 N86°E방향의 장경이 585m, 단경 375m이다. 분화구 외륜산의 능선은 서쪽의 한라산 정상 해발 1950.1m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해발1,935.2m→1,857.5m→1906.3m→1,928.5m→1,893.0m→1,918.0m→1,919.2m→1,944.9m→1946.2m 고지로 이어지고 있으며, 분화구의 둘레는 약1,720m이다.

- 외륜산릉으로부터 분화구의 깊이는19.5m~111.9m로서 분화구 내부의 가장 낮은 곳의 고도는 해발 1,838m이다. 분화구 호수(화구호)인 백록담의 평상시 담수면적은 약 160m×100m이고, 수면의 고도는 해발 1,839m, 수심은 1m~2m 이내이다.
- 한라산은 현무암 내지 조면암질 용암들과 몇몇 오름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부에는 깊이 108m, 폭 550m의 분화구인 백록담이 있다. 한라산은 제주 화산활동 초기의 우세한 수성화산활동에서 용암 분출로 대체되는 중기 플라이스토세, 약 78만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 한라산 정상 백록담 주변의 화산암들은 수 천년 전에 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라산 정상 화산암들은 최근에 분출하였기 때문에 깨끗한 화산 지형과 암층들을 잘 보존하고 있다. 한라산의 정상부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용암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풍경을 제공한다.
- 한라산 백록담은 서편(한라산조면암)과 동편(백록담조면현무암)에 서로 다른 암상들이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화산활동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먼저 백록담 서쪽 사면을 이루고 있는 한라산(백록담)조면암 및 이와 층서적 위치와 암질이 동일한 암석들이 북쪽(관음사 등산로), 서쪽(영실기암) 그리고 남동쪽(서귀포시) 방향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북쪽과 남쪽은 수 개의 분출단위가 확인된다.
- 현재의 한라산 백록담은 백록담조면현무암의 화산활동으로 인해 한라산조면암의 동쪽 측벽을 무너뜨리고 분석구와 방사형의 용암류를 만들고 현재의 화산지형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 고문헌 자료

- 최익현(崔益鉉)의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별도진(別刀鎭),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한라산(漢拏山)유람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 최익현(崔益鉉)의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별도진(別刀鎭)은 배를 타면서 을해년에 쓴 시이다.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별도진(別刀鎭)

낙도에서 몇 해를 세상과 등졌던가, 초여름 좋은 풍경 우로마저 새로워라.
산 안개 걷히고 파도는 고요하며, 한바탕 장유하는 사람되었구려.
저 표묘한 한라산 깨끗도 한데 백록담 영규실 더욱더 새롭구나.
나 같은 신세 어지 산수의 즐거움 알라만.
그래도 먼 데를 구경했다 자랑하리.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한라산(漢拏山)유람기 中

고종 10년(1873) 겨울에 나는 조정에 죄를 지어 탐라(耽羅)로 귀양을 갔다. 하루는 섬사람들과 산수(山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었는데, 내가 말하기를 “한라산의 명승은 온 천하가 다 아는 바인데도 읍지(邑誌)를 보거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구경한 이가 아주 적으니, 갈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인가?”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 산은 4백 리에 뻗쳐 있고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서 5월에도 눈이 녹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상(頂上)에 있는 백록담(白鹿潭)은 여러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노는 곳으로 아무리 맑은 날이라 할지라도 항상 흰 구름이 서려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상에서 영주산(瀛洲山)이라 일컫는 곳으로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에 들어가니 어찌 범상한 사람들이 용이하게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하므로, 나는 이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놀랐다.

-中略-

얼마 후 검은 안개가 킁킁하게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등성을 휘감았다.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구인(九仞)의 공이 한 삼태기에서 무너지는 꼴이 되므로, 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 가서 북쪽 가의 오목한 곳에 당도하여 상봉(上峰)을 바라보았다. 여기에 이르러서 갑자기 중앙이 움푹 맨 구덩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록담(白鹿潭)이었다. 주위가 1리를 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그리고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얕은 곳은 무릎이, 깊은 곳은 허리에 찻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 기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산각(山脚)들도 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였으니 참으로 천부(天付)의 성곽이었다.

-後略-

마. 검토의견 (*****)

-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며 산정화구호인 백록담에 의해 만들어진 빼어난 화산지형을 이룬다. 한라산 백록담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핵심지역으로 한겨울 쌓인 눈을 여름철까지 남아 있어 녹담마설이라는 영주12경중의 하나로 자연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국자 명승으로 지정가치가 높음.

바. 지정조사 의견('12.08.20)

<문화재*** **>

- 영주 12경의 하나인 한라산 백록담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화산섬 발원지이며,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 지역,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핵심 지역이고, 아울러 한라산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록담이 지닌 역사 및 인문학적인 가치나 자연과학적인 가치에 대하여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백록담을 핵심지역으로 하는 한라산 정상부가 지닌 자연경관적인 가치를 더 확실하게 알리기 위하여 이 지역을 국가 차원의 자연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하는 바이다.

<문화재위원 **>

- 한라산 백록담은 우리나라 남한에서 제일 높은 곳의 분화구를 형성하여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영주12경중의 하나로서 주변 기암절벽들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한겨울 쌓인 눈은 여름철까지 남아있어 녹담만설(鹿潭晩雪)이라고 하는 곳으로서 명승으로서 가치가 충분함.
- 한라산 백록담은 정상부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서로 다른 용암들로 구성되어있어, 이들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함.
- 조면현무암의 화산활동으로 인해 동쪽측벽을 무너뜨리고 용암류를 만들어 현재의 빼어난 경관을 보여주는 곳으로서 학술적가치가 크고 신비감을 주며, 고문헌으로는 최익현의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별도진(別刀鎭)과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한라산유람기등이 있어 그 명승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음.

<전 문화재위원 ***>

- 한라산 백록담은 제주의 빼어난 경승지를 일컫는 영주십이경(瀛洲十二景) 중 하나로서, ‘녹담만설(鹿潭晚雪)’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경관이며, 면암 최익현의 ‘한라산유람기’ 등의 다수의 문헌에 등장하는 제주의 상징적 장소임.
- 제주의 어느 곳에서나 바라보이는 한라산의 정상부로서, 한라산 꼭대기에 다시 솟아오른 화산의 형태는 매우 기이하고 신비스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 정상에 화산분출로 형성된 화구호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한라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 한라산 백록담은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제주의 상징적 의미, 전통적 경승으로서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국가지정명승으로 지정할 가치가 매우 큰 대상으로 판단됨.

사. 문화재 지정구역(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m ²) | | 소유자 | |
|----|-----|-------|----|---------------------|---------|-------------|---------|
| | | | | 지적 | 지정면적 | 주소 | 성명 |
| 1 | 토평동 | 산15-1 | 임 | 1,439,256 | 192,145 |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 제주특별자치도 |
| 계 | | | | 1,439,256 | 192,145 | | |

아. 의결사항 : 원안 검토

17. 「한라산 선작지왓」 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한라산(漢拏山) 선작지왓」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라산(漢拏山) 선작지왓」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추진경과
 - '10.8월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연구용역결과 우수자원 선정
 - '12.8.16~17 지정조사 실시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서귀포시장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한라산(漢拏山) 선작지왓」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영남동 산1-1번지 일원 632,485m²
- 문화재종별 : 명승
- 문화재가치
 - 한라산 일원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음.
 - 선작지왓은 한라산 고원의 초원지대 중 영실기암 상부에서 윗세오름에 이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평원지대로서, 선작지왓은 작은 돌이 서있는 밭이라는 의미를 지닌 곳임.
 - 선작지왓은 철쭉을 비롯한 낮은 관목류가 넓게 분포하며 자라고 있으며, 철쭉꽃이 온 지역을 뒤덮은 모습은 장관을 나타내고 있고 한라산 정상 을 배경으로 하는 눈 덮인 설원의 모습과 더불어 선작지왓의 사계는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

- 산철쭉과 털진달래, 눈향나무, 시로미의 군락이 넓게 발달해 있고, 그 사이 다소 습한 초지에는 백리향, 흰그늘용담, 설앵초, 구름송이풀, 구름떡쭉 큰방울새란, 미나리아재비, 별꽃 등이 나타남.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중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화산 등에 해당되고,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에 해당되며,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상 또는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에 해당됨.
- 문화재구역 : 2필지 / 632,485㎡
- 문화재관리단체 : 서귀포시(서귀포시장),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라. 문화재현황

- 입지현황
 - 한라산 주봉인 백록담 화구벽을 정면으로 윗세오름과 방애오름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고산지대의 초원이고, 한라산 초원지대 중 가장 넓은 지역이며, 이곳에는 2개의 샘이 있는데 영실 등반로를 이용하여 윗세오름대피소 가기 전에 위치한 “노루샘”과 윗세오름 동쪽에 방애오름 서쪽 기슭에 위치한 “백록샘”이 있다.
 - 선작지왓 면적은 약 759만평에 달하고, 남동쪽으로는 산별천이 경계이고 동쪽으로는 윗세 중봉쪽 등산로가 경계이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영실 구등산로가 또 남쪽으로는 해발 1,450m 등고선 주변이 숲을 이루는 지역으로서 족도리케가 있는 주변이 남쪽 끝이다.
- 유래 및 전설
 - ‘선’은 ‘서 있다’, ‘작지’는 ‘돌’을 가리키는 말이고, ‘왓’은 제주 사투리로서 ‘밭’을 말한다. 즉, 돌이 서있는 밭이라는 뜻임.
 - 옛날에는 선작지왓 내에서는 사냥을 많이 하였는데 넓은 초원지대에서 대륙사슴, 노루, 멧돼지, 꿩 등을 잡았음.
 - 선작지왓에는 듕성듬성 높은 돌탑 같은 것들이 있어서 높은 돌탑위에 올라가 사냥을 하고자 하는 짐승들의 동태를 보고 사냥꾼에게 어느 방향에 짐승들이 있다는 방향지시를 소리로 얘기하면 사냥개를 데리고 온 포수들이 사슴이나 노루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개를 풀어 잡는 일이 많았으며 지금같이 총이 흔하지 않은 까닭에 올라미를 설치하여 사냥을 많이 했음.

○ 지형·지질 현황

- 털진달래와 산철쭉이 한국에서 제일 넓은 군락지로 평가되는 곳이기도 하며, 눈향나무 자생지는 한라산 내에서 최대 면적의 군락지임.
- 진달래와 철쭉이 차례로 피는데 눈이 녹기 시작하는 4월부터 신록이 짙어가는 6월초까지 이 초원은 온통 분홍빛깔의 산상화원을 이루며, 초봄 갑자기 추위가 엄습할 때는 진달래 꽃잎에 설화가 입혀지는 진풍경이 연출됨.
- 진달래와 철쭉 사이에는 시로미와 눈향나무 등 키가 작은 관목류가 자라고, 백리향, 한라구절초, 설앵초, 구름송이풀, 구름떡쑥, 큰 방울새란, 산자고, 구슬봉이, 용담 등 이름도 아기자기한 들꽃들이 계절을 번갈아가며 꽃을 피움.
- 선작지왓은 영실의 병풍바위를 지나 한라산 정상부근의 윗세오름에 이르는 등산로 남쪽, 해발 약 1,600m~1,700m 사이에 해당하며 완만한 경사를 갖는 넓은 초원지대를 말함.
- 선작지왓 일대의 지질은 하위로부터 법정동조면현무암(Qbto)-윗세오름조면현무암(Qwtb) 순으로 분포한다. 법정동조면현무암은 윗세오름 중에서 죽은오름(해발1,690m)과 누운오름(해발 1,714m)에서부터 분출하여 1100도로 주변에서 광범위한 분포를 하며, 한라산 조면암을 피복함.
- 회색 내지 암회색을 띠며, 장석 반정이 우세하고 소량의 휘석과 감람석을 함유한다. 크고 작은 분석구(噴石丘)를 포함하는데, 분석구는 다공질의 분석과 용암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정동조면현무암은 영실매표소 부근의 계곡이나 영실휴게소에서 등산로를 따라 윗세오름휴게소에 이르는 구간에서도 노주를 관찰 할 수 있음.
- 영실등산로의 죽은 오름 부근에는 용암류가 부풀러 오른 투물러스(tumulus)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지점에서 남쪽으로 많은 투물러스들이 발달하면서 영실조면암체를 덮고 있다. 이 암석은 1100도를 따라 어승생에 이르는 도로변과 거린 사슴에서 법정동을 거쳐 남단부는 하원동에 이름.

○ 인문 및 자연경관 현황

- 선작지왓은 노루들의 집단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연중 거의 마르지 않는 2개의 샘인 노루샘과 백록샘은 노루들에게 귀중한 곳임.
- 노루들이 무리지어 산상초원을 누비고 다니는 모습은 마치 산책하는 연인이나 동산을 뛰어 노는 개구쟁이들 또는 단란한 가족들의 나들이처럼 정겹게 보이는 최고의 연미가 넘침.
- 윗세오름 중봉인 누운오름 자락을 돌면서 등산로가 90°가량 꺾이는데, 이 모퉁이에 샘이 하나 있다. 윗세오름대피소에서 가장 가까운 샘인 노루샘이다. 심한 가뭄 때만 빼고는 연중 물이 흐르는 곳이다. 이지역의 샘터는 모두 1급수 임.
-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정상 남벽으로 향하는 등산로를 따라 30여분 동안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방애오름 서쪽 기슭에 백록샘이 위치해 있다.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 용출하는 흔치 않는 샘 중 하나인데, 이 샘은 산을 오르내리는 이들에게는 물론 동물과 식물에도 매우 중요한 샘임.

마. 검토의견 (***)**

- 선작지왓은 철쭉을 비롯한 낮은 관목류가 넓게 분포하며 철쭉꽃이 온 지역을 뒤덮은 모습은 장관을 이루고 눈덮인 한라산 정상을 배경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화산을 포함하고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로서 국가 명승 지정가치가 높음.

바. 지정조사 의견('12.08.20)

<문화재위원* *>**

- 선작지왓은 한라산 고원지의 초원지대로 영실기암 상부에서 윗세오름에 이르는 곳에 위치한다. 선작지왓이란 작은 돌이 서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이 일대는 산철쭉, 털진달래, 눈향나무, 시로미 등으로 대표되는 낮은 관목류의 군락이 넓게 퍼져 있어서, 철쭉꽃이 피는 계절에는 한라산 정상부를 향한 들판 전부가 아름다운 꽃으로 장관을 이루어 탐방객들을 감동시킨다. 선작지왓에 대한 명승적인 가치는 2010년 8월에 사전 조사를 마친 바 있으며, 비록 세계자연유산과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이미 지정,관리되고 있지만, 이 지역이 지닌 자연경관적인 가치를 특별히 알리기 위하여서는 국가 차원의 자연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이곳 노루샘에서 흘러내리는 수로를 따라 고산 습지가 형성되고 있어서, 자연명승으로 지정된 후에 집중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이 고산습지가 지닌 학술적인 가치를 구명해야 할 과제가 남겨져 있음.

<문화재위원 *>**

- 선작지왓은 한라산고원의 초원지대 중 영실기암 상부에서 윗세오름에 이르는 곳에 위치한 평원지대로서, 노루샘 등의 수원으로 습지대를 형성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며, 회색내지 암회색의 서있는 돌군들이 특이한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명승적 가치가 뛰어남.
- 선작지왓은 철쭉을 비롯한 진달래, 눈향나무 등 낮은 관목류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백리향,한라구절초,설앵초,구름송이풀,용담등 아기자기한 들꽃들이 계절을 번갈아가며 꽃을 피우고 있음.

- 또한 매년 4월~6월이면 철쭉꽃이 온 지역을 뒤덮는 모습은 한라산 정상을 배경으로 눈덮힌 설원의 모습과 더불어 대단히 빼어난 경관을 형성함으로 명승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
- 선작지왓의 경관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중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구릉, 화산 등에 해당되고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에 해당되며,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한 자연유산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명승으로 지정하는데 손색이 없음.

<전 문화재위원 *>**

- 한라산 선작지왓은 영실기암 상부에서부터 윗세오름에 이르기 까지 넓게 펼쳐있는 한라산의 고원지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일대는 고원지대에 자라고 있는 관목류의 식생이 주된 경관을 이루고 있는 곳임.
- 특히, 철쭉 류가 우점하고 있는 고원으로, 철쭉이 만개한 풍광은 온 산이 불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경승이며, 이러한 고원의 풍경을 전면 에 두고 한라산 정상 오름이 그 뒤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는 선작지왓은 매우 아름다운 경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한라산 선작지왓은 그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고원풍광의 빼어남 을 비롯해, 한라산 정상을 바라보는 조망지점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해보면, 국가지정명승으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 대상으로 판단됨.

사. 문화재 지정구역(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m ²) | | 소유자 | |
|----|-----|----|----|---------------------|---------|-------------|--------|
| | | | | 지적 | 지정면적 | 주소 | 성명 |
| 1 | 영남동 | 산1 | 임 | 10,028,965 | 341,011 | 제주 서귀포시 영남동 | 국(산림청) |
| 2 | 서호동 | 산1 | 임 | 2,005,211 | 291,474 |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 국(산림청) |
| 계 | | | | 12,034,176 | 632,485 | | |

아. 의결사항 : 원안 검토

18. 「제주 방선문(訪仙門)」 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 방선문(訪仙門)」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방선문(訪仙門)」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추진경과
 - '10.8월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연구용역결과 우수자원 선정
 - '12.8.16~17 지정조사 실시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제주시청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제주 방선문(訪仙門)」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907번지 등
- 문화재종별 : 명승
- 문화재가치
 - 방선문은 백록담에서 선녀들이 목욕하는 동안 한라산 신선이 잠시 자리를 피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명소로서, 영주10경 중의 하나인 영구춘화의 장소로 알려진 명승지임.
 - 방선문은 거대하고 특이한 암석과 주변의 식생 그리고 수계가 잘 조화된 경관지여서 옛날부터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며, 지금도 이들이 새겨놓은 마애명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역사가 있는 문화적 명소임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조선시대에는 제주에 부임한 관리들이 풍류를 즐겼던 경승지로서 바위에는 곳곳에 마애명이 새겨져 있어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의 의미가 큰 장소이며,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

- 방선문 계곡은 영주12경의 하나인 영구춘화의 대상지이며, 한천 상류에서 하천 가운데에 커다란 기암이 마치 문처럼 서 있다. 하천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식동굴의 일부가 남아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중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화산 등에 해당되고,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에 해당되며,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상 또는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에 해당됨.
- 문화재구역 : 9필지 / 63,847㎡
-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시(제주시장)

라. 문화재현황

- 입지현황
 - 방선문은 제주공항에서 7.3km거리에 있으며, 상류에서 내려오는 두 돌기의 계곡이 하나가 되는 합류머리에 나타나는 아치형의 하식동굴임.
 - 입구천장에 “방선문”이라는 마애명이 큰 글씨로 음각되어 유래된 것으로 길이 약 10m, 높이 5~6m, 폭 6~7m 정도의 큰 바위가 한천 양쪽 계곡을 가로지르고 있음.
 - 방선문이 위치한 한천 상류부근은 영주십이경의 하나인 영구춘화로 절경을 가리키는데, 봄놀이의 명소로 잘 알려져 있음.
- 유래 및 전설
 - 푸른 절벽이 깎아 지른 듯 서있는 한 천 한가운데 마치 대문을 열어 놓고 있는 모양으로 지붕이 덮여있고 앞뒤로 트여있는 큰 바위가 있는데 예부터 ‘신선이 방문하는 문’이라는 뜻으로 방선문(訪仙門)
 - 방선문은 등영구(登瀛邱), 들렁귀(들렁계), 환선문, 거암곡(擧巖谷) 등 여러 별칭으로 부르는데, 특히 들렁귀는 제주 고유의 말로 ‘들렁’은 ‘속이 비어 툭 트임’이라는 뜻이며 ‘귀(계)’는 ‘입구’를 뜻함.
 - 옥황상제와 선녀 그리고 흰사슴이 된 신선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방선문 계곡에서 선녀가 목욕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려던 신선이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 백록(白鹿)으로 변해 홀로 백록담을 지켜야 했던 전설이 전해지고 있음.
- 고문헌 자료
 - 김석익(金錫翼)의 심재집(深齋集)에서 방선문은 아래 같이 표현하고 있음.
 - 김치(金緻)가 광해군 1년에 방선문 암벽에 새긴 시
 - 홍중징(洪重徵)의 등영구(登瀛邱)라는 시를 방선문 암벽에 새긴 시
 - 영초(瀛樵)의 시를 방선문 암벽에 새긴 시

김석익(金錫翼)의 심재집(深齋集)

하내 사이 좌우로 낭떠러지 마냥 걸쳐 있는 곳에
커다란 바위가 엮어져 있음이
마치 무지개와 같은 형태의 문을 일컬어
방선이라고 한다.

김치(金緻)가 광해군 1년에 방선문 암벽에 새긴 시

귀신의 도끼로 돌을 깎은 것이 아니라
천지가 개벽할 때 열려진 곳
오랜 세월 흰구름 쌓여 있어
신선이나 속인이 많이 올 수 있을는지

홍중징(洪中징)의 등영구(登瀛邱)라는 시를 방선문 암벽에 새긴 시

바위의 큰 구멍이 입을 벌린 곳
돌이끼꽃 바위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아라
꽃 속의 음악 소리 따라
난새와 학새가 날아드는 듯

영초(瀛樵)의 시를 방선문 암벽에 새긴 시

꾸불꾸불 휘돌아 든 시원한 골짜기
냇물은 흐르다 연미마을에서 나뉜다
신선을 만나보기 어려워라
오랜 세월 구름이 잠겨 있어서

○ 지형·지질 현황

- 방선문은 바위가 문처럼 뚫려있어 사람이 지나다니게 되어 있다. 하천의 하식작용으로 발달한 방선문 계곡은 제주도에서 긴 하천의 하나인 한천(漢川; 한내) 중류에 위치한 계곡이다. 한라산에서 발원하는 한천은 우기에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이 흐르는 건천(乾川)임.
- 방선문은 앞뒤가 트여있고 위에는 지붕이 덮여 있는 바위의 모습이 마치 큰 대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두 계곡이 합쳐지는 부근에서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현무암질 용암류의 약한 부분이 침식되어 형성된 하식동굴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방선문 계곡 일대의 지질은 하위로부터 신생대 제4기에 분출한 정실현 무암-오라동하와이아이트-오등동현무암이 분포한다. 정실현무암의 표식지는 제주시 오라동 정실마을이며, 한천 바닥에서 잘 관찰됨. 알카리현 무암에 속하는 정실현무암은 결정질 용암류로 구성되며 다공상 구조를 갖는다. 남쪽 한라산쪽으로 계단상 지형을 이루고 있어 용암분출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시사한다. 오라동하와이아이트는 현무암의 일종인 하와이아이트와 조면안산암에 해당된다. 북쪽의 도남동에서 남'쪽의 오라골프장 일대에 걸쳐 한라산까지 연장된다. 다공질구조가 발달하는 용암류이며, 용암이 깨진 덩어리들이 모인 클링커층이 두껍게 형성되기도 한다. 최후기에 분출한 다공질 오등동현무암은 현무암질 용암류로서 오등동 탐라교육원 부근의 하천에 잘 나타남.
- 방선문은 계류변에는 참나무과의 상록활엽수종들과 예덕나무 등의 낙엽 활엽수종들이 어우러져 난대성 활엽수림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수림의 구성 수종 가운데 흔히 보이는 종류로는 구실잣밤나무,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사스레피나무, 광나무, 조록나무 등의 상록활엽수들과 예덕나무, 팽나무, 자귀나무, 말오줌대 등의 낙엽활엽수종들이 나타나며, 상록수종들의 줄기나 바위 위에는 마삭줄과 석위, 콩짜개덩굴 등이 부착해 있어서 난대성 활엽수림의 면모를 잘 나타냄.

○ 인문 및 자연경관 현황

- 방선문 계곡은 제주도의 뛰어난 명승지인 영주10경(瀛洲十景) 중의 하나로서, 봄이면 진달래꽃이 만발하여 영구춘화(瀛丘春花)로 알려져 있음.
- 방선문 계곡은 시인과 묵객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이 곳에는 다수의 마애각 제명과 제영 등이 발견된다. 각자의 주체는 대부분 제주에 부임했던 목사나 관관, 유배왔던 적객들이 계곡 풍류를 즐기면서, 때론 마음을 달래면서 바위나 절벽에 새겨서 남긴 흔적들이 50여 군데에 있음.

마. 검토의견 (*****)

- 방선문은 거대하고 특이한 암석과 주변의 식생 그리고 수계가 잘 조화된 경승지로서 옛날부터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며,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경관이 함축된 문화적 명소로 국가 명승으로서 가치가 높음.

바. 지정조사 의견('12.08.20)

<문화재위원* ***>

- 제주시 오등동 1907번지 일원에 소재하는 방선문 계곡은 백록담에서 선녀들이 목욕하는 동안 한라산 신선이 잠시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곳이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영주 12경의 하나인 명승지이다. 방선문은 거대한 암석이 하천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터널을 이루어 신선이 노는 곳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형성하며 주변에는 수많은 기암들이 계곡에 산재해 있어 경이로운 자연경관을 이룬다. 이 계곡은 건천이지만 비가 오면 물이 흘러내려서 주변의 자연식생과 더불어 경승지로서의 면모를 보여 옛부터 이 지역에 부임하는 관리들이 이곳에 와 풍류를 즐겼고, 수많은 마애명을 남겨 곳곳에 그 명문들이 새겨져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남기고 있다. 방선문의 명승적인 가치는 2010년 8월에 이미 조사 완료한 바 있으므로 이곳을 역사문화 명승지로 지정하는 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문화재위원 ***>

- 방선문은 거대하고 특이한 암석, 철쭉,진달래등 주변식생이 아름다운 수계와 함께 빼어난 경관을 형성하는 곳으로서 명승적 가치가 충분함.
- “신선이 방문하는 문”이란 뜻의 방선문은 조선시대 제주에 부임한 관리들과 시인 묵객들이 시를 쓰며 풍류를 즐겼던 곳으로서 바위 곳곳에 마애명과 시들이 50여곳 널려져있어 자연경관외에도 문화경관의 의미가 큰 장소로서의 명승적 가치가 높음.
- 방선문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중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곳, 급류, 심연, 폭포, 호소, 사구, 하천의 발원지, 동천, 대, 바위, 동굴 등에 해당되고, 저명한 건물 또는 중요한 전설지등으로서 종교, 교육, 생활, 위락등과 관련된 경승지에도 해당되는 자연명승이면서 역사문화명승에 포함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음.

<전 문화재위원 ***>

- 제주 방선문(訪仙門)은 한라산에서 시작해 제주시 방향으로 형성된 한내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경승임, 제주시 오등동과 오라2동의 경계지점의 하천에 바위가 문처럼 뚫려있어 사람이 지나 다니게 되어 있으며, 이 바위문으로 신선이 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상징하는 영주십경(영주십경)의 하나로서 영구춘화(영구춘화)의 장소이며, 제주에 온 수많은 관리와 문사들의 흔적 및 시문이 전하는 곳으로서, 제주에서는 문화경관적 의미를 가장 크게 지니고 있는 장소로 생각됨.
- 제주 방선문은 자연경승으로서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특히 문화적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큰 장소로서 국가지정명승으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판단됨.

사. 문화재 지정구역(안)

| 순 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
| | | | | 지적면적 (m ²) | 지정구역 (m ²) | 주소 | 성명 |
| 1 | 제주시 오등동 | 1907 | 천 | 90,126 | 3,826 | | 국(국토해양부) |
| 2 | 제주시 오라2동 | ** | 체 | 18,349 | 212 | 제주시 연동 *** | *** |
| 3 | 제주시 오라2동 | ** | 묘 | 565 | 565 | 회천리 | *** |
| 4 | 제주시 오라2동 | ** | 임 | 10,073 | 10,073 | 제주시 이도1동 **** | *** |
| 5 | 제주시 오라2동 | 3819 | 천 | 20,268 | 20,268 | | 국(국토해양부) |
| 6 | 제주시 오라2동 | 3828 | 도 | 65,408 | 56 | | 국(건설교통부) |
| 7 | 제주시 오라2동 | 3836 | 천 | 34,840 | 609 | | 국(국토해양부) |
| 8 | 제주시 오라2동 | *** | 임 | 15,928 | 1,660 | 제주시 연동 *** | **** |
| 9 | 제주시 오라2동 | **** | 임 | 26,578 | 26,578 | 제주시 오라2동 **** | *** |
| | 합계 | | | 282,135 | 63,847 | | |

아. 의결사항 : 원안 검토

19.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내 옛길복원사업 설계승인

가. 제안사항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내 옛길복원사업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설계승인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내 옛길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승인 신청하는 사항임.
- * 2012년도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으로 국고보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 대상문화재명 :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0호)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외
 - 지정일 : 2000.7.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성산일출봉 옛길 복원사업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 사업내용 : 탐방로 하산길 조성 L=405.5m (기존 탐방로 - 등산길)
 - 정상암반구간 : 천연목 설치 L=97.2m, B=1.5m
 - 허리경사구간 : 천연목 설치 L=200.0m, B=2.5m
 - 평지구간 : 제주형 판석 L=108.3m, B=2.5m
 - 기타공사 : 옥외조명 64개소, 옥외스피커 6개소, CCTV설치 6개소
 - 사업기간 : 2012. 9월 ~ 2013. 2월
 - 총사업비 : 1,446백만원(국비1,012, 지방비434)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의결사항 : 보류

【보고사항】

천기 2012-08-20

2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20건)

다. 보고내용

| 구분 | 대상문화재 | 주요내용 | 비고 |
|----------------|-----------------------------|--|------|
| 현상 변경 허가 | 천연기념물 제324-1호 올빼미 | ○ 신청인 : *** (충북야생동물센터) ○ 허가사항 :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부검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 ○ 신청인 : 성신자연사박물관장(***) ○ 허가사항 : 박물관 전시 및 교육자료 활용을 위한 박제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201-3호 혹고니 | ○ 신청인 : 청주랜드관리사업소 ○ 허가사항 : 천연기념물 폐사체의 박제 활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소각처리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323-4호 새매 등 5점 | ○ 신청인 : 안양시장 ○ 허가사항 : 폐사체를 전시·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박제 | <허가> |

| 구분 | 대상문화재 | 주요내용 | 비고 |
|----|----------------------------------|--|------|
| |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영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 허가사항 : 박제 활용이 불가능한 폐사체 조각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324-6호 소쩍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장 ○ 허가사항 : 박제 활용이 불가능한 폐사체 조각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259호 어름치 3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립추진기획단 ○ 신청내용 : 전시·체험·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포획 및 박제. ○ 불허사유 : 자연폐사된 개체 활용방안 검토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323-7호 새매 등 6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장 ○ 허가사항 : 폐사체를 전시홍보·교육연구 및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박제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2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체험학습을 위한 사육 ○ 허가기간 : 2012.8.1-2017.7.31(5년간) ○ 사육장소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3 ○ 개체수 : 원앙 2수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190호 황쏘가리, 제259호 어름치 각 2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영월군수 ○ 허가사항 : 동강생태정보센터 수족관 전시를 통한 교육 및 체험학습을 위한 포획 및 사육 ○ 포획허가기간 : 2012. 8. 2 - 8. 18(17일간) ○ 사육허가기간 : 2012.8.1-2017.8.1(5년간) ○ 포획장소 : 영월읍 삼옥리 동강변(섭사~등글바위) 일원 10km ○ 사육장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목골 ○ 개체수 : 황쏘가리, 어름치 각 2수 | <불허> |

| 구분 | 대상문화재 | 주요내용 | 비고 |
|----|-------------------------------|---|------|
| |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2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체험학습을 위한 사육 ○ 허가기간 : 2012.8.7-2017.8.16(5년간) ○ 사육장소 : 전남 곡성군 입면 창정리 *** ○ 개체수 : 원앙 2쌍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184호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 ○ 사업명 : 선운사 승려 노후수행관 건립 ○ 사업위치 : 전남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64-1 ○ 사업내용 : 수행관 1동(100.98㎡) ○ 허가기간 : 허가일 ~ 2013.3.31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 사업명 : 한라산국립공원 산불감시시스템 구축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 등 ○ 사업내용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개소 설치 등 ○ 허가기간 : 허가일 ~ 2013. 1.31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사업위치 :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 ○ 허가사항 : 창고 4동 신축 ○ 허가기간 : 2012.8.17.~2012.12.31. | <허가> |
| | 명승 제32호 문경새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문경시장 ○ 사업명 : 문경새재 기도굴 진입로 계단 정비 공사 ○ 위치 : 문경새재 제2관문 주변 ○ 사업내용 : 기도굴 진입로 자연석 계단 설치 - 길이 54.5m, 폭 1.2m ○ 허가기간 : 2012.8.2~2012.12.31 | <허가> |

| 구분 | 대상문화재 | 주요내용 | 비고 |
|----------------------|---------------------------------|---|-----------------|
| | 명승 제59호 달마산 미황사 일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사업명 : 미황사 내 간이 샤워실 개축 ○ 위치 : 세심당 앞 ○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 샤워실 1동 60㎡ ○ 허가기간 : 2012.8.2~2012.9.30 | <허가> |
| 허가 사항 변경 허가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업명 : 통합인증서 조형물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산137-24 등 ○ 변경허가사항 : 허가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허가일~2012.8.31 → (변경) 허가일~2012.12.31 | <허가사항 변경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사업명 : 신흥사 조사전 건립 ○ 사업위치 : 강원 속초시 설악동 170 일원 ○ 변경허가사항 : 규모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40.54㎡ 정면 3칸, 측면 2칸 - (변경) 69.93㎡ 정면 3칸, 측면 3칸 | <허가사항 변경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사업명 :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오등동 산182 등 ○ 변경허가사항 : 강관주 설치위치 변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1780고지 → (변경) 1870고지 | <허가사항 변경 허가> |
| |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사업명 :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판매장 신축 ○ 위치 : 허용기준 2구역 <당초>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200㎡, 건축면적 38.88㎡ - 건폐율 19.44%, 구조 조립식 판넬 ○ 허가기간 : 2012.5.22~2012.12.31 <변경>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200㎡, 건축면적 38.88㎡ - 건폐율 19.44%, 구조 조립식 판넬 - 사인의 '묘' 로 인해 부지내에서 위치변경 ○ 허가기간 : 2012.5.22~2012.12.31 | <허가사항 변경 허가> |

| 구분 | 대상문화재 | 주요내용 | 비고 |
|----|-------|------|----|
|----|-------|------|----|

다. 의결사항 : 원안 접수